

김경수 ‘광주·전남 메가시티’…김동연 ‘서해안 RE100라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1일 서울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서유심 금융투자협회장(오른쪽)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선거 캠프에서 열린 '백팩 메고 TMI' 기자간담회에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김경수·김동연 후보, 호남권 경선 앞두고 표심 공략

김경수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 호남을 AI 중심도시로 육성”

김동연 “헌법 수록으로 5·18을 5·18 답게, 전남 국립의대 신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 나선 김경수, 김동연 후보가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표심 공략에 나섰다.

두 후보는 공히 광주·전남지역 주요 현안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대명’ (여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판세에도 지역의 여망이 담긴 현안을 적극 수용하고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유권자에 다가가려는 전략이다.

김경수 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광주·전남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국토균형발전 관점에서 5대 권역별 메가시티(Mega-City) 자치정부로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메가시티로 묶어 정부가 5조원 이상 자율예산을 지원하고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김 후보는 지역 특화 공약으로 호남을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및 메가 샌드박스 지정을 통한 AI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계적 수준의 국가 특성화 연구 중심 대학 투자를 통해 지역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함께 AI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내

놔다. 김 후보는 전남 지역의 숙원사업인 의대 신설 등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광주전남 당원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은 교통 등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다른 시도보다 훨씬 경쟁력이 높다”며 “다른 지역도 또 다른 수도권으로 만들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메가시티로 묶이면 광주와 전남으로 이해관계가 나뉘어 지지부진한 광주공항 이전 문제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메가시티 구축으로 자신이 제시한 공약 외 다양한 지역 현안과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정부가 매년 5조 원의 예산을 주면 전남대, 한전공대, 주요 사립대에서 AI 분야에 집중 투자해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며 “메가시티를 통해 지역의 운명을 지역이 책임지게 만드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도 이날 호남경선을 앞두고 호남권 공통 공약 6개와 광주·전남 세

부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공동공약으로 ‘서해안 RE100라인 집중투자’를 제시했다. 서해안 신재생에너지벨트를 구축해 호남권과 수도권의 첨단산업을 연계하고 광주, 전남 주력 산업인 철강, 반도체, 자동차 산업을 저탄소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또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명칭 변경을 통해 ‘5·18을 5·18 답게’ 만드는 대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담은 호남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호남권 메가시티가 요구하고 있는 광역교통망 구축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김동연 후보는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인권의 가치를 알린 지역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가 호남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사이, 호남의 미래는 뒤로 밀려났다”면서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호남의 앞날을 변화시킬 비전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오는 24일 광주를 찾을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이재명 “의대 정원 사회적 합의로 합리화”

“공공의대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 양성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는 22일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의료 정책 발표문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인공지능)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다”며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응급, 분만, 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또 “건보 재정의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보 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군 정찰위성 4호기 우주궤도 진입…“지상국 교신 성공”

우리 군의 정찰위성 4호기가 22일 우주궤도 진입 후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

정찰위성 1~3호기에 이어 4호기 발사에도 성공함에 따라 대북 감시망을 더 촘촘하게 구축한 것이다.

정찰위성 4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은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 48분(현지시간 21일 오후 8시 48분)에 발사됐다.

발사 15분 만인 10시 3분 팰컨9의 2단

추진체에서 분리돼 목표궤도에 안착한 정찰위성 4호기는 낮 12시 27분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정찰위성 4호기는 앞으로 수개월간의 운용시험평가 등을 거쳐 대북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사된 정찰위성 4호기는 2, 3호기와 마찬가지로 합성개구레이더(SAR)를 탑재하고 있다.

SAR은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쏘고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어서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주·야간 촬영이 가능하다.

정찰위성 1호기는 전자광학(EO) 및 적외선(IR) 촬영 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EO 장비는 가시광선을 활용해 지상의 영상을 직접 촬영하기 때문에 선명한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지만, 날씨에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이 낀 날에는 임무 수행이 제한된다. IR 장비는 온도 차에 따라 구분되는 적외선 검출 센서를 이용해 영상 정보를 획득해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하다. 역시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정찰위성 1~4호기는 중대형 정찰위성 5기를 확보를 위한 우리 군의 ‘425 사업’에 따라 발사됐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탁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